

동사 ‘먹다’를 통해 살펴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다의 관계 인식 양상 연구

김은혜*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인지모형 이론에 의한 의미 연구
- III. 틀의미론에 의한 의미
- IV. 문화적 관습과 인지 방식에 의한 의미
- V. 나가며

I. 들어가며

다의어는 하나의 어휘 항목이 둘 이상의 관련된 의의를 지니고 다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단어를 뜻한다. 다의어 연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¹⁾ 첫째는 울만(Ullmann)의 의미론을 바탕으로 다의어의 적용과 해석의 방향을 연구한 논의들로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별 문제, 기본의미와 파생 의미 설정의 문제, 기본의미와 관련된 용어의 문제, 사전상의 배열과 뜻풀이 문제를 주로 다룬 구조주의 의미론적 논의다.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 과정

1) 홍재성·김현권(2003 : 39~40)에서는 다의어 연구가 인지주의적 관점에 의한 이론적 접근, 사전편찬학에 의한 실천적 접근, 자연언어처리, 전자사전, 워드넷과 연관된 응용적 접근에 의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접근에 따른 논의만으로 한정하겠다.

둘째는 다의어의 의미 파생 과정에 대해 인지적 도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인지 의미론적 논의를 들 수 있다. 인지 의미론적 논의에서는 원형 의미와 관련된 용어의 문제, 인지적 이미지 도식, 은유와 환유의 구체적 원리 설정에 대해 다룬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획득해 가는 근거 및 절차에 초점을 둔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낱말의 의미는 개념화 과정과 동일하며 그 범주의 원형의미는 은유와 환유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인지원리에 의해 방사상의 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인지적 관점은 의미 현상을 심리적 실체로 보아 다의 현상을 언어적 차원에서 개념적(인지적) 차원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의미의 구조와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구조주의 관점보다 더 타당한 설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다의어 설정에 있어, 올만은 그의 저서 『Principles of Semantics』에서 복의(複意)가 의미 연구의 중심 문제라면서 복의에 해당하는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다. 한 뜻의 여러 가지 국면을 보이는 ‘적용의 이동(shifts in application)’, 한 단어가 여러 뜻을 지닌 ‘다의어(polysemy)’, 발음은 동일하나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인 ‘동음어(homonymy)’가 이에 해당한다.²⁾ 올만은 다의어의 전 단계로 적용의 이동 단계를 두고 있으며 이 세 단계는 불연속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인지언어학에서 원형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 그 경계를 개방적인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이, 적용의 이동 단계, 다의어, 동음어 사이의 경계는 모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나 하나의 단어가 지닌 여러 의미의 관계가 소원해져 동음어로 되는 과정은 언어 변화의 추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언어화자의 인식과, 시간의 변화, 사회적 관습, 문화적 요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결부되어 있고 문맥에 의한 일시적 의의 확립이나 통사범주와 관련한 구문적 요소나 문법화에 의한 의미 변화도 관여하고

2) 이에 대해서는 이현근(1992 : 103) 참조 ① 적용의 이동 : healthy climate(좋은 기후), healthy complexion(건강한 안색) ② 다의어 : human head(사람 머리), head of a department(부장), bridge-head(교두보) ③ 동음어 : sea(바다), to see(보다), a see(가톨릭에서 教區)

있다.

구조주의 의미론과 인지의미론은 단어의 의미를 문맥에 의존하여 파악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구조주의자들에게 문맥 의존성은 언어 체계 안에서 기호들의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에서 주어진다. 의미가 결합되는 장소는 의미장이며 언어 내적이다. 한편 인지의미론자들에게 의미가 기술되는 장소는 인지모형이며 언어 외적이다. 임지룡(1997 : 128)은 의미장은 개별 낱말 사이의 관계에 의해 각 낱말의 의미를 결정하지만, 인지모형은 한 묶음의 지식에 근거해 각 낱말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한다.³⁾

다의어는 한 단어가 그와 결합하는 다른 어휘와의 관계에 따라 기존 의미와는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면서 의미를 확장해 가는데 이때 그 단어와 결합하고 있는 다른 단어가 무엇이며 어떠한 부류(의미상의 공통성)으로 인해 묶일 수 있는 어휘항들의 집합에 속해 있는가를 이해하면 여러 의미들 가운데 어떤 의미가 실현된 것인지 알 수 있다. 또한 다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나 절차에 주목하면 언어 사용 주체가 어떤 범주적 근거에 의해 대상세계를 파악하는지, 즉 언어 사용 주체의 인식 방법에 대한 인지적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

이에 본고는 동사 ‘떡다’가 다의성을 획득하게 된 요인에 주목하고 인지모형에 근거하여 ‘떡다’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떡다’의 다양한 의미를 한국어 고급 학습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가령, 임지룡(1997 : 128)은 칫솔의 의미를 계열 관계에 있는 ‘손톱 솔’, ‘구뚝솔’과 같은 ‘솔’의 의미장에 있는 항목에 한정하지만, 인지언어학에서는 칫솔의 의미를 구강 위생에 있어서 칫솔의 역할로부터 인지하기 때문에 ‘손톱 솔’이나 ‘구뚝솔’과 관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본고는 의미장이론과 인지모형이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구조주의 의미론과 인지의미론의 관계 또한 상호보완적이라는 관점을 취하지만 인지의미론에 더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II. 인지모형 이론에 의한 의미 연구

인지언어학은 변형생성문법으로 대표되는 객관주의 의미론과 자율적 통사론이 주도해온 현대 언어학에 의문을 제기하며 등장하였다. 언어 연구에 있어서 사용 주체인 인간 및 그 활동 배경인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언어에 대한 참다운 이해에 이르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인지언어학은 언어의 이해와 사용은 지식, 문화적 배경 등의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에 주목해 왔다. 그러므로 인지언어학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언어 연구의 새로운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객관적인 의미자질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의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이나 상호 작용하는 체험의 범주화로 바라보는 체험적 견해에 근거하여 파악한다. 인간의 눈에 비친 현저성의 정도에 따라 정보의 선택과 배열이 결정되며 개념화의 과정에서 개념화 주체의 주의나 관심이 반영된다.

인지언어학에 토대를 둔 인지모형(cognitive model theory)⁴⁾은 어떤 분야에 관해 저장된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적 견해를 보여준다. 인간은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온갖 종류의 현상에 대한 경험을 상호 연관된 문맥과 함께 저장된 지식을 갖고 있다. 인지범주들은 그들이 속한 인접 범주와 인접한 범주와 관련된 전체의 문맥에도 의존한다. 그러므로 어떤 분야에 속하는 모든 저장된 인지 표시들은 하나의 모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간은 본래 잠재의식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다루기 위해 수많은 인지모형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모형들은 삶 속에서 터득한

4) 인지모형은 1990년 이래로 원형의 내적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형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정신적 모형을 나타내는데 그 모형은 공유되고 구조화된 지식의 내면화된 인지모형으로 간주된다. 임지룡(1997 : 123~137)에서는 용어 ‘인지모형’이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왔음을 밝히고 프레임, 도메인, 이상적 인지 모형의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체험적 관찰, 문화적 경험, 경험한 기억의 단편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복합적으로 통합된 혼합체이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해 준다.

본고는 틀(frame)의미론을 중심으로, 문화적 모형, 은유로 대표되는 잠재적 인지모형의 상호 연관 속에서 동사 ‘먹다’의 의미를 파악하기로 한다. 실제로 이들 세 모형은 Lakoff의 이상적 인지모형(ICMs)이 틀의 명제 구조, 래내커의 영상도식 구조, Lakoff & Johnson의 은유 및 환유의 총체임을 고려할 때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틀의미론에 의한 의미의 생성과 해석 원리는 언어공동체의 문화적 특징에 따른 의미 작용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적용될 수 있고 은유 표현에 따른 다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틀의미론이 ‘먹다’의 보편적 의미 해석 원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문화적 경험과 은유에 의한 인지 방식에 따른 의미 해석 원리는 언어 특징적 현상임을 고려하여 장을 달리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우선, 틀은 Fillmore(1985 : 223)에 따르면 지식의 특이한 통합 체제 혹은 체험의 응집력 있는 도식화를 뜻한다. 즉 개념은 서로 관련된 체계를 만들며 존재하는데 이러한 개념 체계를 틀(frame)이라고 한다. 한 개념의 이해에는 그것을 포함한 체계 전체 구조의 이해가 전제된다. 틀은 낱말의 의미를 구조화하며 낱말은 틀을 불러일으킨다. 사람의 인지체계는 고립된 개념으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구조화된 체계인 틀과 사람의 믿음, 행동, 경험, 상상력의 긴밀한 집합들로 구성된 지식의 전체 덩어리,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적 모형(cultural model)은 인류학자들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Radden(1992 : 526-31, 임지룡(1997 : 133 재인용))에 의하면 어떤 문화권 속에서 인지 모형의 공유된 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화모형은 한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지모형이다. 언어 간에 개념적 의미가 같은 단어가 존재해도 그 단어의 내포적 의미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는 인지 모형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모든 상황을 제공한다.

잠재적 인지모형(covert ICMs)의 대표적인 사례는 은유와 환유다. 은유는

인지모형의 중요한 원천으로 우리의 사고를 반영하고 지배한다. Lakoff & Johnson(1980)은 은유를 경험의 한 영역(근원영역)에서 다른 경험의 영역(목표영역)으로의 체계적인 인지사상(cognitive mapping)으로 규정한다. 가령, 사람들이 분노하면 생리적으로 체온이 상승하고 혈압이 높아지며 얼굴빛이 붉어지고 이성을 잃기도 한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언어 표현에도 반영되어 분노의 감정은 그릇 속에 담긴 액체와 같아 압력을 받으면 분출한다는 인식이 담긴 표현이 많다. “분통을 터트렸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머리 뚜껑이 열렸다, 김이 팍팍 난다.” 사람들은 무한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엄청난 언어 표현을 만들지 않고 유사한 경험을 동일한 단어로 엮어 줌으로써 언어를 융통성 있고 유연성 있게 다룬다. 잠재적 인지모형은 인간 행동의 양상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미 확장 기제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환유는 A와 B가 있어 이 둘이 서로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화자가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A이지만, A를 가리키는 표현을 쓰지 않고 B를 가리키는 인지 전략이다. 즉 환유는 한 대상 A의 명칭을 인접한 대상 B로 전이 확장하는 것이다. ‘아침을 먹다’는 시간적 인접성에 의해 ‘아침’이 ‘아침밥’을 뜻하는 환유에 의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틀(frame)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경험과 인지 방식에 의한 다의어 ‘먹다’의 의미 연구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인이 먹는 행위를 어떻게 경험하고 지각하고 개념화하는지를 탐구하도록 이끌어 ‘먹다’ 관련 표현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Ⅲ. 틀의미론에 의한 의미

우선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듣는 ‘먹다’ 관련 예문을 통해 먹는 행위의 가장 기본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⁵⁾

- (1) 아이들이 과자를 잘 먹는다.
- (2) 너 껌 먹을 때 소리 좀 내지마!
- (3)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제 맛이야!
- (4) 형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유를 먹는다.
- (5-1) 아기가 온종일 우유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한다.
- (5-2) 강아지가 우유를 다 먹었다.
- (6) 엄마, 나 사탕 먹고 싶어요.
- (7) 몸이 약해진 누나는 보약을 몇 차례나 먹어도 늘 골골거렸다.

예문 (1)~(7)을 통해 볼 때 동사 ‘먹다’의 의미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먹는 행위를 살펴보면 (1)의 경우는 과자를 입 안에서 씹어 배 속으로 넘기는 행동을 (2)의 경우는 껌을 씹기는 하지만 배 속에 들여보내지는 않는 행동을 (3)의 경우는 씹거나 혀를 이용해 녹여 넘기는 행동과 연관이 있다. 우유를 먹는 예문의 경우에서도, (5-1)의 아기는 우유병 속에 든 우유를 빨아 넘기고 (5-2)의 강아지는 우유를 핥아 먹는다. 그러나 (4)에 제시된 학생은 우유를 마신다. 대체로 마시는 것은 액체로 된 것을 씹는 과정 없이 배 속으로 넘기는 것이다. (7)의 보약 역시 우유처럼 마신다. (6)의 사탕은 빨아 먹거나 씹어 먹는데 대체로 입 안에서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녹여 먹는다.

위 예문에는 ‘먹다’라는 동일한 어휘가 쓰였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동작은 각기 다르다. ‘먹다’의 의미는 먹는 **대상물**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실제 수행되는 동작이 다르지만 먹는 행위에 부여된 언어적 표현은 세부적인 동작(씹어 먹기, 빨아 먹기, 핥아 먹기)을 구분하기보다는 뭉뚱그려서 ‘먹다’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람들은 ‘먹다’의 중심 의미를 자신이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는데 이는 사전적 지식

5) 본고에 제시된 예문과 용례의 출처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표준국어대사전』 용례 색인(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과 2000년도 한국어 세계화 추진 기반 구축 사업 보고서에 제시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의미빈도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이며, 때에 따라서는 필자가 접한 구어 자료를 이용하였다.

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얻은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음식을 먹는 주체가 누구인지 역시 ‘먹다’의 정의에 영향을 끼친다. (5-1)에서와 같이 아기는 우유를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빨 수만 있기 때문에 ‘아기가 우유를 마시다’는 표현은 어색하다. 결국 동사 ‘먹다’는 “씹다, 삼키다, 빨다, 빨다, 마시다, 복용하다”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상위어적 속성이 있으며 넓은 의미영역을 갖는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동사 ‘먹다’가 지닌 ‘음식물을 몸 안으로 섭취하는’ 경우만 한정해서 살펴 보았으나, ‘먹다’가 지닌 넓은 의미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틀 속에서 ‘먹다’의 확장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음식물 섭취’ 인지모형에 의한 의미

남경완·이동혁(2004)는 틀(frame)을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되는 체계 전체를 이해해야만 하는 그러한 개념의 체계, 지식의 특정한 통합적 체계 또는 경험의 적합한 도식화로 본다. 틀은 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의해 표상된다. 틀의미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각각의 어휘가 특정한 틀을 부각시키고 그 틀의 구성요소가 윤곽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때 부각된 틀은 곧 해당 어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구조가 되고 윤곽이 드러난 요소들은 주변 텍스트나 문장의 의미적 구조를 통합하는 틀의 구성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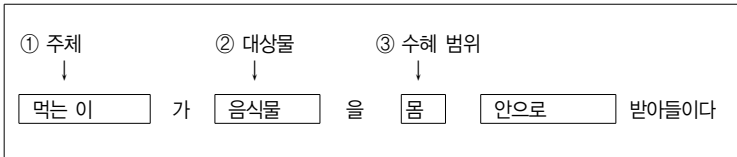
실제로 동사 ‘먹다’가 부각시키는 틀은 먹는 행위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Schank and Abelson(1977 : 41~67)에서는 스크립트는 잘 알려진 상황을 정의하는 미리 결정되고 정형화된 행동들의 순서로 사람들은 수천 가지의 스크립트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스크립트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한다. ‘먹다’와 연관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스크립트로 간결하게 작성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8) ‘먹다’의 스크립트(scripts)

- ① 먹는 이는 음식을 입 안에 넣는다.
- ② 음식물은 잘게 부수어져 몸으로 들어간다.
- ③ 음식물은 사라지고 몸에는 영양분이 생겨난다.

위에 제시된 스크립트는 상황에 따라 확장되고 변형되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먹는 우리의 경험이 위와 같은 핵심 과정을 거친다면 <표 1>과 같이 ‘먹다’의 틀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래내커(Langacker)의 용어에서는 틀(바탕, frame)의 어떤 요소를 전경화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는 과정을 윤곽부여라 하는데 <표 1>의 ①, ②, ③ 단계 중 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부각된 의미를 ‘먹다’의 확장된 의미로⁶⁾ 볼 수 있게 된다.

<표 1> ‘먹다’의 틀 구조(frame) : 《음식물 섭취》 모형



이제 <표 1>을 중심으로 ‘먹다’가 보이는 확장 의미를 구체적 용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⁷⁾ 동사 ‘먹다’는 음식물과만 공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음식물을 목적어로 취하는 일이 많다. 즉 <표 1>의 ② 대상물이 예문

6) 원형의미란 다의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인데 비해, 확장 의미는 파생적이고 전이된 의미로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는 비대칭적 관계를 이룬다. 원형 의미는 무표적이지만 확장의미는 유표적이며, 원형의미에 비해 확장의미는 어휘적 제약, 문법적 제약, 낮은 사용 빈도, 인지적 비현저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임지룡(1997 : 64~71, 246)

7) 이양혜(2002 : 188~189)는 ‘먹다’는 동일 형태소로서 단일 문장의 서술 기능을 가지고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에 쓰이고 있음을 논의하며 동일 형태가 가진 이러한 기능상의 이질성은 원래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기능이보다 뜻의 이질성에서 기인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뜻의 변화는 기능상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통사론적 접근보다는 의미적 관계를 부각하여 ‘먹다’ 동사에 의한 주체와 대상물의 영향 관계와 주체의 확장 및 주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9)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9-1) 골/육/한방/ 먹다.

(9-2) 마음/양심 ; 겁/쇼크/충격/에 먹다.

(9-3) 더위 먹다.

(9-4) 나이 먹다.

(9)는 주체가 외부에서 대상물을 받아들인 것에 초점이 있다. <표 1>에서 ① 주체와 ② 대상의 관계를 살펴볼 때, (9-1)은 주체가 수동적으로 대상물을 입는 것이고 (9-2)의 ‘마음/양심’은 주체 내부에서 없던 것이 생겨난 것으로 어느 정도 의도성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겁, 쇼크, 충격, 애’는 주체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체가 경험하며 생기는 변화다. 그러나 (9-2)에 제시된 모든 예들은 공통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주체가 입게 되는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9-3) 역시 주체의 의도와 상관없이 병에 걸리는 것을 ‘더위를 먹는다’고 하여 몸에 변화가 생겨난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9-4)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태져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에 제시된 예문들은 주체의 능동적인 능력과는 무관하게 주체가 대상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거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주체가 입은 변화를 표현한 것이다.

외부에서 대상물을 받아들일 때 대상물이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앞서 (8)에 제시한 ‘먹다’의 스크립트(scripts)에 연계해 확장된 의미를 유추해 보면 <<음식물 중에는 몸에 해로운 것이 있다>>는 내용을 부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음식물을 먹고 몸에 탈이 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체험을 상대방으로부터 골을 먹는 것이나 육을 먹어 손해를 입는 상황에 유추할 수 있다.

(8) 확장된 ‘먹다’의 스크립트(scripts)

먹는 이는 음식물을 입 안에 넣는다.	O	⇒ 피동성 골/육/한방/겉/쇼크/ 충격/양심/애/더위
음식물은 잘게 부수어져 몸으로 들어간다.	O	
음식물은 사라지고 몸에는 영양분이 생겨난다.	X	
음식물 중에는 몸에 해로운 것이 있다.	O	

다음에 제시될 용례들 역시 주체와 대상물과의 영향 관계로 살펴볼 수 있다. (10)은 주체가 대상 환경 안으로 들어가 생활한다는 의미가 있다. 주체는 서울/외국에서 살며 경험한다는 뜻을 지닌다. (11)은 주체가 대상 환경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팀에는 구성원이 있고 주체는 그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가 된다. (12)는 주체가 대상물을 능동적으로 차지함을 부각한 것이다.

- (10) 서울물/외국물 먹다.
- (11) 편먹다.
- (12) 돈/너물/1등/챔피언/여자를 먹다.

이어서 주체가 확장되면서 수혜 범위에 초점이 부여되는 경우에 ‘먹다’가 지닌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보통 ‘먹다’의 주체는 예문 (13)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인 유정물로서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그런데 (14)~(17)의 예문들은 무정물 주체가 먹는 행위와 연관되어 이해되는 경우이다.

- (13) 철수/고양이가 생선을 먹다.
- (14) 종이에 물이 먹다.
 옷감에 풀이 먹다.
 구두에 왁스가 잘 먹다.
 얼굴에 화장이 먹다.
- (15) 밤에 벌레가 먹었다
 얼굴에 버짐을 먹다
- (16) 대패가/톱날이 잘 먹어 일이 한결 쉽다.

(17) 차가 기름을 많이 먹다.

예문 (14)는 주체가 종이, 옷감, 구두, 얼굴로 대상물이 배어들거나 고무 퍼지는 상태에 초점이 있다. <표 3> ‘먹다’의 틀 구조(frame)와 연관 지으면 ③ 수혜범위에 윤곽부여된 것이다. (15)는 벌레가 밤을 갉아 먹었지만 그 벌레는 밤 속에 들어 있어 밤이 벌레를 먹은 형국이며, 얼굴에 버짐이 퍼져 있는 상태이다. (16)은 대패와 톱날이 잘 든다는 의미이지만 대상물을 깎거나 베어 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이 놓인다. (17) 역시 차가 기름을 탱크에 넣어두고 기름을 소모해 가면서 차가 운행하는 과정을 유정물이 음식을 먹고 그 에너지로 움직이는 과정과 동일시하여 이를 초점화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문 (14)~(17)은 모두 대상물이 받아들여지거나 흡수되는 과정을 부각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14)와 (15)는 확장된 주체에 주격 조사가 아닌 처격 조사를 사용하고 대상물에 주격 조사를 사용하여 주체에 일어나는 변화, 즉 동작보다는 상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먹다’의 확장의미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먹다’의 확장의미

중심의미	먹는 이 주체	가	음식물 대상물	을	몸 수혜 범위	안으로	받아들이다
확장 의미	주체(유정물)와 대상물의 영향 관계에 의한 의미 주체가 수동적으로 대상물을 받아들이다 주체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화를 입다 주체가 대상물(환경) 안으로 들어가다(생활하다) 주체가 대상 환경의 한 부분이 되다 주체가 대상물을 능동적으로 차지하다						수동성 ↑ ↓ 능동성
확장 의미	주체가 무정물로 확대되면서 수혜 범위가 부각된 의미 주체에 대상물이 받아들여지거나 흡수되다						

2. 학습자가 인식한 ‘먹다’의 의미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먹다’의 의미 확장을 외국인 학습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고급)>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대학원생 24명⁸⁾을 대상으로 ‘먹다’를 포함하고 있는 예문을 제시하고 ‘먹다’의 중심의미를 1번으로 하여 확장 관계가 멀어질수록 높은 수치를 부여하되 공통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 동일한 번호를 적어 의미를 구분하고 해당 의미를 적도록 하였다.

〈표 3〉 ‘먹다’의 뜻풀이 및 의미 분류 과제

1. 경찰관은 뇌물을 먹고 범인을 놓아 주었다. _____
2. 그는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었다. _____
3. 김이 습기를 먹어 눅눅해졌다. _____
4. 김 과장은 회사의 공금을 먹었다. _____
5. 세상일이란 마음을 먹기에 달려 있다. _____
6. 아기가 온종일 우유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한다. _____
7. 얼굴에 화장이 잘 먹지 않고 들뜬다. _____
8. 연탄가스를 먹고 정신을 잃었다. _____
9. 이 차가 네 차보다 기름을 더 먹어. _____
10. 체육 대회에서 우리 반이 일 등을 먹었다. _____
11. 하루 종일 욕만 되게 먹었네. _____
12. 형은 나보다 두 살 더 먹었다. _____

학습자 3인이 한 조가 되어 <표 3>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표 4>에 보이듯 6~9개의 의미 분류가 이루어졌다.

8) 학습자들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 혹은 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한국어로 보고서 및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있어 발표와 보고서 쓰기를 일상적 학술 활동으로 하고 있다. 한국 체류 기간은 3개월(교환 학생인 경우)에서 10년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학습자의 국적은 중국(19명), 카자흐스탄(1명), 몽골(2명), 베트남(1명), 미얀마(1명)이다.

〈표 4〉 외국인 학습자가 분류한 ‘먹다’의 의미

조	뜻풀이 순위								
	1	2	3	4	5	6	7	8	9
1조	음식먹다	흡수하다	많다	가져가다	얻다 / 받다	결정하다			
2조	받다	음식먹다	흡수하다	결정하다	소비하다	많다			
3조	음식먹다 흡입하다	쓰다 가지다	빼돌리다	화장 효과	욕 듣다	많다	결심하다		
4조	음식이 몸 속으로 들 어가다	흡수하다	받다	결심하다	들다 (쓰다)	나이가 더 많다	당하다		
5조	음식을 섭취하다	흡입하거나 소모하다	횡령하다	나이 들다	결심하다	취득하다	욕 듣다		
6조	음식을 흡수하다	스며들다	흡입하다	소모하다	횡령하다	받다	연상이 되다	결심하다	
7조	(신체에) 먹거나 마 시다	흡수하다	흡치다	결정하다	쓰다	우승하다	~아/어 버리다	살다	부정된 것 을 받다
8조	먹다	마시다	흡수하다	들다	부정하게 받다	꾸중 듣다	때내다	나이 들다	결심하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2조를 제외하고 ‘먹다’의 중심의미를 ‘몸/신체 안으로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3조와 6조는 연탄가스를 음식물과 같이 신체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다른 조와 차이를 보였다. 학습자들은 두 번째 의미로 습기, 화장, 연탄가스가 스며들거나 흡수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경우에도 차가 기름을 흡수하는 것을 동일한 양상으로 여기는 조(3조, 5조)가 있지만, 대체로 기름의 경우는 ‘~이 소모되거나/쓰다/들다’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뇌물과 공금의 의미적 차이를 한데 묶어 ‘먹다’의 의미를 ‘횡령하다/빼돌리다’로 처리하였으나 뇌물은 횡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7조와 같이 뇌물과 공금의 의미를 구별한 뜻풀이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조와 6조는 ‘욕/일등 먹다’를 하나의 공통된 의미로 분류하였으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개별적으로 보고 있다. 학습자들은 ‘나

이 먹다, 기름 먹다, 마음먹다’를 개별적인 의미로 파악하여 각각의 ‘먹다’ 의미를 ‘많아지다, 소모하다, 결심하다’로 보고 있다.

이제 외국인 학습자가 인식한 ‘먹다’의 의미 확장은 실제 사전에 제시된 의미 확장 순서와 대비해 볼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표 5>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 따른 ‘먹다’의 뜻풀이 제시 순서이다. ‘뇌물 먹다’의 경우는 용례가 항목을 달리해서 두 번 제시되었기에 ④번 뜻풀이의 것을 택했다.

<표 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 제시된 ‘먹다’의 의미 확장

순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뜻풀이	과제에 제시된 용례
I①	(밥/떡/과일/과자/아이스크림 따위의) 음식을 입을 통하여 넘기다	된장찌개 먹다
I①	(우유/커피/물/술 따위의) 음식을 입을 통하여 넘기다	우유 먹다
I①	(약/보약 따위를) 씹거나 마시다	
I①	(껌)을 씹다	
②	(입이나 코를 통해) 연기나 기체를 들이마시다. 피우다	연탄가스 먹다
③	어떤 마음이나 자세를 가지다	마음 먹다
④	어떤 일에 일정한 몫이나 이익(이자, 뇌물)을 차지하다	뇌물 먹다 ✓
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것을 차지하거나 가로채다	공금 먹다
⑥	어떤 나이가 들다	나이 먹다
⑦	물기 같은 것(물, 땀, 기름)을 빨아들이다	습기/기름
⑧	(강제로 피어서) 성관계를 가지다	
⑨	(겁이나 충격 등을) 경험하다	
⑩	(어떤 규제나 조처 등을) 당하다	
II①	남으로부터 욕/편찬/꾸지람을 듣다	욕 먹다
②	남으로부터 뇌물/부당한 돈/장물 따위를 받다	(뇌물 먹다)
III	경쟁이나 시험 등에서 높은 등수를 차지하다	일등 먹다
IV①	(벌레/버짐이 먹다의 꼴로) 원래 상태가 손상되다	
②	(화장/풀 따위가) 잘 배어들거나 고루 퍼지다	화장이 먹다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사전에 제시한 10개의 뜻풀이를 8개 정도로 단순화해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을 알 수 있다. <표 6>에 보이듯 사전에서는 ‘화장이 먹다’를 가장 중심 의미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학습자들은 ‘마음을 먹다’가 가장 멀어진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은 ‘화장이 먹다’를 연탄가스나 습기, 기름과 같이 ‘무언가를 흡수하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으며 ‘먹다’의 중심의미와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과 공금을 공통된 의미 범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욕과 일등을 비슷한 의미 범주로 묶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표 6> 외국인 학습자가 인식한 ‘먹다’의 의미 확장

용례	학습사전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된장찌개를	1	1	1	1	1	2	1	1	1
우유를	1	1	1	1	1	2	1	1	1
연탄가스를	2	1	2	2	2	3	3	1	2
마음을	3	7	4	5	6	4	8	4	9
뇌물을	4	3	3	3	4	1	5	9	5
공금을	5	3	3	3	4	1	5	3	5
나이를	6	6	6	4	3	6	7	8	8
습기를	7	2	2	2	2	3	2	2	3
기름을	7	2	5	2	3	5	4	5	4
욕을	8	5	7	7	5	1	6	7	6
일등을	9	2	3	6	5	1	6	6	7
화장이	10	4	2	2	2	3	2	2	3

학습자들은 사전적 뜻풀이 배열 순서대로 ‘먹다’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제시한 뜻풀이 배열 순서는 우리의 세상사적 지식을 동원한 경험적 측면에서 사전보다 의미의 연계성이 명확해 보인다. <표 7>에 보이듯 먹는 행위와 연관된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먹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근거로 해서 의미적 연결고리를 능동적으로 찾아냄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의미적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이와 같은 과정은 단어의 의미를 깊이 있게 처리하도록 돕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며 의미의 확장적 쓰임을 발견하는 이점이 있다.

<표 7> 외국인 학습자가 분류한 ‘먹다’의 의미 연계성

중심의미	확장의미
① 음식물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다	⇒ ② 스며들다, 흡수하다 ⇒ ③ 소모하다
	↓
	④ 받다 ⇒ ④' 흡치다, 횡령하다
	⇒ ⑤ 우승하다
	⇒ ⑥ 욕을 듣다/당하다
	⇒ ⑦ 나이 들다
	⇒ ⑧ 결심하다

외국인 학습자가 분류한 ‘먹다’의 의미를 대별하여 종합한 <표 7>은 ①과 ②, ④에 나타난 의미적 연계성을 설명하기에 타당한 면이 있으나, ⑦과 ⑧의 의미는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어 결국 중심의미와의 연계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먹다’의 틀 구조(frame)에 근거하여 ‘먹다’의 주체, 대상물, 수혜 범위에 따라 ‘먹다’의 의미 확장에 대해 종합한 <표 2>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IV. 문화적 관습과 인지 방식에 의한 의미

1. 문화적 경험과 ‘먹다’의 의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먹다’는 액체, 기체뿐 아니라 비음식물과도 다양한 공기 관계를 보인다. <표 8>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고급)>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먹다’와 공기할 수 있는 대상물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엄밀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먹다’ 관련 표현 중에 한국어에 없는 모든 사례도 밝혀 ‘먹다’의 의미 영역을 비교해야 할 것이지만⁹⁾ 적어도 한국어 ‘먹다’와 공기하는 명사가 언어권별로

9) 언어권에 따라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를 적게 하여 ‘먹다’에 해당하는 단어와 다르다는

는 어느 정도 공통성을 지니는지 살펴볼 수는 있다.

〈표 8〉 학습자 언어권에 따른 ‘먹다’와 공기하는 표현의 다양성

[]을/를 먹다	한국어	중국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몽골어	카자흐스탄어
식사이름	아침	0	0	0	0	0
음식이름	비빔밥	0	0	0	0	0
고체	고기	0	0	0	0	0
	사탕	0	0	0	0	0
액체	국	0			0	
	물	0				
	술	0				
	우유	0				
기체	담배	0				
	아편	0	△10)			
비음식	약	0	0	○11)		
	돈/ 뇌물	0			0	0
	나이	0				○12)
	마음	0				○13)
	생각	0				○14)
	애	0				
	겉	0				
	충격	0	○15)			
	양심	0				
	1등	0				
	한 방(주먹)	0				0
	꼴	0				
	욕	0				0
	더위	0				
	편	0				

것을 확인하였으나 다르게 제시된 단어가 ‘먹다’의 유의어군인지 면밀한 대응 관계를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시다’와 같은 유의어의 쓰임이 한국어와 달리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미얀마어에서는 ‘약을 마시다’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10) 1930년대까지는 ‘아편을 먹다’는 표현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11) 약을 복용할 때 ‘먹다’와 ‘마시다’ 표현 둘 다 가능하다.

[]을/를 먹다	한국어	중국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몽골어	카자흐스탄어
관용 표현	골탕	0				
	물	0				
	미역국	0				
	콩밥	0				
	국수	0	0 ¹⁶⁾			
	옛	0				
	까마귀 고기	0				0
	한술밥	0	0		0	0

<표 8>에 보이듯 한국 사회 구성원이 관습적으로 용인해온 ‘먹다’의 미 영역은 동일한 표현이 존재해도 그 의미가 문화권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어의 ‘마음먹다’에는 걱정하단의 의미가 있고, 중국어로 ‘국수 먹다’에는 생신을 잘 지내셨는지를 묻는 안부의 의미가 있다. 외국인 학습자가 학습자 모국의 문화를 반영한 표현을 한국어 표현에 전이하거나 한국어 표현을 학습자 모어로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한다면 적절치 못한 의사소통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동사 ‘먹다’가 지니는 확장의미는 언어적 표현에 반영된 우리의 체험과 사고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 절에서는 문화적 경험에 의한 ‘먹다’의 확장의미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언어 화자의 인지작용은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문화는 언어에 영향을 끼치고, 문화적 요소 또한 인지작용에 의해 유형화되고 통제되는 하나의 언어 단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문 (18)~(21)에서와 같이 어떤 언어의 의미 요소들이 결합하여 생겨난 의미가 문화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아주 현저한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 12) 의미는 ‘먹다’와 동일하지만 ‘먹다’의 높임말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 13) ‘마음먹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결심하다’이고 다른 하나는 ‘많이 걱정하다’를 뜻한다.
- 14) ‘생각을 많이 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 15) ‘놀라다’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쓰인다.
- 16) 연세가 있으신 분께 생신날 생신을 잘 차려 드셨는지에 대한 인사말로 한정되어 쓰일 수 있다.
- 17) ‘같이 살다’의 의미로 ‘한 술’은 아니지만 ‘한 그릇에서 먹다/ 한 음식을 먹다’의 표현이 있다.

가리키는 것이 되면 결합된 언어는 하나의 의미 범주를 획득하게 된다. (18)은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한국의 관습과 연관되어 있으며 (19)는 과거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콩밥을 주었다는 사실에 (20)은 전통적으로 결혼식에서 국수를 먹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의 지속을 기원한 관습과 연관이 있다. (21)은 한 술에서 나온 밥을 먹는다는 의미로 주거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¹⁸⁾ 이들 예문은 모두 배경이 되는 상황 중 일부를 들어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환유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 (18) (생일날에) 미역국은 먹었어? (⇒생일은 잘 챙겨주었는가?)
- (19) 이 자식이 정말 콩밥먹어볼 테야? (⇒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 (20) 이번 가을엔 국수 먹을 수 있는 거야? (⇒ 결혼 소식을 전하다)
- (21) 우리가 한술밥 먹은 지도 벌써 8년째야. (⇒ 함께 생활하다)

문화권에 따라 식습관이 다르고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권별로 다른 표현 방식이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일례로 중국에서는 결혼식이나 특별한 날에 사탕을 선물하거나 먹는 일이 많아서 “사탕을 먹다”라는 표현이 특별한 날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특정 문화권에서만 용인되는 ‘먹다’ 표현은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지 엿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22)의 경우를 살펴보자.

- (22) 카자흐스탄어의 ‘먹다’ 결합 표현¹⁹⁾
 - ① (아무개)를 먹다 : 어떤 사람에게 너무 많이 야단 치고 소리치는 경우
 - ② 파리를 먹다 : 너무 가난해서 음식도 못 먹고 벌레 같은 것을 먹는 경우
 - ③ 나의 빵을 먹다 : 어떤 사람이 집에 얹혀살거나 오랫동안 집 주인의 돈으로 사는 경우
 - ④ 뇌를 먹다 : 다른 사람을 너무 귀찮게 하는 경우
 - ⑤ 피를 먹다 : 다른 사람을 알미울 정도로 귀찮게 하는 경우
 - ⑥ 깨물어 먹다/구워 먹다/튀겨 먹다 : 다른 사람을 이용하다. 다른 사람의

18) 나아가 어떤 일을 함께 하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고 이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표현이다. <표 8> 참조

19)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생인 굴나라 양의 도움을 받았다.

재산을 싹 가져가다.

- ⑦ 먹어 버렸다 :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았다.
- ⑧ 먹지 마! : 닥쳐!(속어)
- ⑨ 먹혔어? : 어떤 일에 실패했거나 누군가에게 혼났는지를 묻는 말(속어)

(22)에 제시된 카자흐스탄어의 먹다 결합 표현은 카자흐스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이 쉽게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문화적 요소가 언어 단위에 반영되는 일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인지하여 관습화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특수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는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지를 관습적 표현을 통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2. 문맥에 의한 ‘먹다’의 의미

어떤 행위를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는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인지할 때 ‘먹다’를 유용함으로써 적용의 전이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먹다’의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 행위의 어떤 면에 초점이 주어지는가에 따라 다의가 생기는 방향도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으며 때로는 특정한 문맥과 발화 맥락에서 일시적인 다의성을 획득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은유는 시적, 혹은 비유적 언어로서 수사법의 일종으로 언어에 국한된 문제로 다루어졌지만 인지언어학에서 은유는 사고 기제로서 세계를 개념화하는 수단이다.

‘먹다’와 결합한 동사 구성에서도 은유적인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23)은 먹다와 선행어 사이의 관계가 통사적 구성으로 나타난 경우로 ‘먹다’의 의미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로 파악된다. 그러나 (24)의 경우는 형태상으로 합성어를 이루어 통사적 구성으로 환원이 불가하며, 의미의 특수화를 일으켜 합성동사가 된 경우다. 먹다와 선행동사 사이의 단어 경계가 약화되어 형태소 경계가 되어 의미가 달라진 표

지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부분이고 의미의 특수화가 일어난 동기를 특수한 상황을 ‘-어 먹다’의 경험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은유로 생각할 수 있다.

- (23) 까 먹다/남겨 먹다/들어 먹다/떼어 먹다/벗겨 먹다/잡아 먹다
 (24) 까먹다/남겨먹다/들어먹다/떼어먹다/벗겨먹다/잡아먹다
 (25) 내가 지금까지 헌신해서 일한 세월이 얼마데 지금까지 발라먹을 대로 다 발라먹고 이제는 버리겠단 말이지.
 (26) 도대체 저 이야기를 왜 그렇게 우려먹는지 모르겠다.
 (27-1) 사장님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27-2) 이 일은 비용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예문 (25)~(27)에서 ‘먹다’의 확장된 의미는 은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의 ‘잡아먹다’의 경우 “남을 몹시 괴롭히며 못 살게 굴다”와 “비용, 자재, 시간, 노력 따위를 허비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먹이 연쇄에서는 힘이 더 강한 쪽이 포식자가 되어 약한 것을 공격해 먹어버리는 것과 같이 사장님과 나의 관계를 먹이 연쇄로 연상하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2)는 잡아먹힌 대상은 사라져 없어지는데 시간과 비용 역시 잡아먹힌 것과 같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인지된다.

이미 동사 ‘먹다’ 자체가 다의어로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선행동사와 결합하여 의미적 특수화를 일으키는 것은 ‘먹다’가 여러 어휘에 결합하여 빈번한 쓰임을 가지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는 약화되는 한편 그 의미의 폭은 넓어진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 경험을 또 다른 경험으로 인지하는 사고 작용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양혜(2002 : 190)에서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사례를 제시하며 ‘먹다’의 뜻이 과거에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용 영역이 커지고 다른 단어를 대신하여 유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뜻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양혜(2002 : 190)에 제시된 중세국어 자료를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언어사용자의 인식구조에 따른 사용 영역에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현대국어에는 보이지 않는 (28), (29)와 같은 ‘먹다’의 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28)은 현대국어에서 ‘뜻을 품다’나 ‘마음을 먹다’의 표현이 적절해 보이고 (29)의 의심의 경우도 의심을 ‘품다/하다’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 (28) 섭고 애원븐 뜰들 머거 갖가스로 사니노니(석보:5) ; *그는 서러운 뜻을 먹었다.
- (29) 疑心 머구를 띠티 묻흐며(원각 하2-1:49) ; *그는 의심 먹기를 피하지 못했다.
- (30) 아이들은 꿈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 (31) 그 사람도 사람이야. 이슬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특정한 문맥과 발화 맥락에서 일시적인 다의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30), (31)과 같은 사례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대국어에서 용인 가능하다. (30)의 ‘먹다’는 “(희망이나 포부 등을) 지니다/품다”, “(사랑을) 받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하다. (31)은 선녀가 먹음직한 이슬을 먹지 않는다는 뜻으로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 사용자가 일시적 문맥 속에서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나 특수화된 의미를 지닌 합성어로 굳어진 ‘먹다’ 관련 표현을 한국어 학습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로 하여금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게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 (32) 내가 지금까지 일한 세월이 얼마데 지금까지 발라먹을 대로 다 발라 먹고 이제 와서 해고야?
- (33) 도대체 저 이야기를 왜 그렇게 우려먹는지 모르겠다.
- (34) 사장님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 (35) 우리 친구 먹기로 했다.
- (36) (K가 성인군자인 줄 알았더니 화도 낼 줄 안다고 놀라는 친구에게)그 사람도 사람이야. 이슬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표 10〉 학습자가 문맥을 통해 이해한 ‘먹다’ 의미

(32) 발라먹다	이용하다 착취하다 부러먹다 (○)
(33) 우려먹다	반복하다 두고두고 말하다(○) 자랑하다 고민하다 걱정하다 궁급하다(×)
(34) 잡아먹다	못살게 굴다 괴롭히다 힘들게 하다(○) 죽이다 야단치지 못하다(×)
(35) 친구 먹다	친구 되다 사귀다 친하게 지내다(○)
(36) 이슬 먹다	보통사람과 다른 신선이나 요정 같은 사람 세상일과 상관없이 순수하다(○) 만만치 않은 사람 약하다 밥을 안 먹다(×)

학습자들은 대체로 문맥을 이용하여 올바른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들은 엉뚱한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였다(예문 (33), (34), (36)의 경우). 학습자에게 주어진 문맥은 ‘먹다’의 의미를 한정하여 이해할 수 있는 참조 틀로서 역할을 하지만 학습자가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슬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상황 문맥 속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약하다’는 의미를 가정하기는 힘든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들에게는 주어진 문형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예상한 표현을 대치해보아 제대로 의미를 유추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가령 이야기를 ‘고민하다, 걱정하다’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문맥에 의해 주어진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와 필자의 인지 방식을 추론하도록 도와야 한다. 요컨대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이러한 의미 확산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문맥에서 창출되는 잠재적 의미를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는 언어 표현 이면에 존재하는 언어사용자의 인식 구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V. 나가며

지금까지 동사 ‘먹다’의 의미를 틀의미론을 바탕으로 기본의미와 확장

의미의 관계를 주체와 대상물의 영향 관계 및 주체의 확장과 주체에 일어나는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울러 문화적 경험과 사고가 반영된 환유와 은유에 의한 표현들도 살펴보았다. 의미 확장 및 변화를 언어 사용자의 인식구조와 연관된 것으로 보아 역사적 흐름과 연관된 의미 변화와 일시적으로 문맥 속에서 다의성을 지닌 표현도 함께 살펴보았다. ‘먹다’의 의미는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에 의해 확장되기도 하지만 ‘먹다’가 지닌 어휘적 의미가 언어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도 확장되고 있다. ‘먹다’는 현대로 오면서 사용 영역이 커지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문맥의 뒷받침에 의한 ‘먹다’의 잠재적 확장의미는 ‘먹다’의 의미 영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고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동사 ‘먹다’의 확장의미와 잠재적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음식물 섭취모형’에 의한 동사의 다의성 논의는 교육적 활용도가 높음을 보였다. 틀의미론은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의미 분석 과정에 도입한 것으로 단지 단어를 외우는 기계적 학습과 달리 단어가 사용되는 거시구조를 틀로 인식하는 학습자의 인지구조와 연관된 방법이기 때문에 어휘학습으로 유용하다. 틀의미론에 윤곽부여를 하여 인지한 낱말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저장할 수 있으며 망이론에 연결되어 개방적으로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틀의미론은 유의미적 학습을 이끌어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적 경험에 의한 의미나 은유나 환유에 의한 의미, 잠재적인 의미를 지닌 ‘먹다’ 관련 표현을 교수하면 한 두 개의 표현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인지모형과 연관된 여러 표현을 총체적으로 다루게 되어 효율적이며 한국인의 인지방식 및 문화적 관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의미를 유연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할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 논문은 2011. 6. 28. 투고되었으며, 2011. 7. 1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7. 29. 심사 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경태(2008), “다의성 동사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보다’를 중심으로”, pp. 1~21.
- 김동환(1999), “틀의미론과 의미구조”, 『언어과학연구』 16, pp.73~101.
- 남경완·이동혁(2004), “틀의미론에서 분석한 ‘사다’와 ‘팔다’의 의미 분절 양상”, 『언어』 29, 한국언어학회, pp.1~24.
- 문금현(2005b), “한국어 다의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새국어교육』 71, 한국국어교육학회, pp.67~89.
- 문금현(2006),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다의어 학습 방안 : 동사 ‘보다’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pp.143~177.
- 이양혜(2002), “먹다의 기능과 의미 변화”, 『한국어학』 15, pp.185~210. 한국어학회.
- 이정식(2002), “국어 다의 발생의 양상과 원인”,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이종열(2005), “먹다의 다의적 의미와 구문적 확장”, 『한국어학』 27, pp.249~277.
- 이현근(1992), “개념구조에 의한 단어의 다의성 연구”, 『언어연구』 8, pp. 101~123.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2003), “다의어 ‘사다’ ‘팔다’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pp.165~190.
- 최경봉(1998), “국어 어휘 의미 연구에서 인지이론의 수용 양상과 전망”, 『한국언어문학』 41, 한국언어문학회,
- 최경봉(1999), “단어 의미의 구성과 의미 확정 원리—다의어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연구』 20, pp.63~87.
- 하화정(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다의어 교육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홍재성(1992), “동사 먹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새국어생활』 2-4, pp.14~37.
- 홍재성(1993), “먹다 속어동사구문의 통사적 기술”, 『어학연구』 29-3, pp.279~299.
- 홍재성·김현권(2003), “Melčuk의 설명결합사전과 한국어 동사 “사다/팔다”의 의미 기술”, 『언어학』 35, pp.39~75.
- Fillmore, C.J.(1985), Frames and the semantics of understanding, *Quaderni di semantics* 6 : 222~254.
- Lakoff, G. &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노양진·나익주 옮김(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 Schank, R.C. & Abelson, R.(1977), *Scripts, Goals, Plans and Understandings*, Hillsdale, NJ : Erlbaum

<초록>

동사 ‘먹다’를 통해 살펴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다의 관계 인식 양상 연구

김은혜

본고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다의어 ‘먹다’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동사 ‘먹다’가 의미 확장을 일으키는 요인을 추적하였다. 이를 위해 틀(frame), 문화적 모형, 은유로 대표되는 잠재적 인지 모형의 상호 연관 속에서 동사 ‘먹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는 ‘먹다’의 의미 확장을 언어 사용자의 인식구조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단어가 사용되는 거시구조를 틀로 인식하여 어휘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 두 개의 표현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인지 모형과 연관된 여러 표현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며 한국인의 인지방식 및 문화적 관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결국 의사소통 상황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의미를 유연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임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다의어, 인지 모형, 틀, 문화적 모형, 잠재적 인지 모형

<Abstract>

A Study of How Advanced Korean Learners Recognize Multiple Meanings of Verb ‘먹다’

Kim, Eun-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f expanding meanings of ‘먹다’ and the aspects of how advanced Korean learners recognize polysemy ‘먹다’. For this purpose, the various meanings of ‘먹다’ were examined by frame theory, cultural model and idealized cognitive model.

This study suggests that advanced Korean learners should study vocabulary through recognizing cognitive structures of the language users. This will help the learners to recognize a frame as the macro structure while they learn the various extensive meanings of ‘먹다’. Dealing with overall meanings of a word according to the cognitive model theory is effective in that advanced Korean learners could understand Korean’s way of recognition, cultural custom and potential meanings which evoke in various context.

【Key words】 polysemy, cognitive model theory, frame, cultural model, idealized cognitive model